

경기공유학교,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교육 협력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과 경기공유학교 협력 교육 체계 구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 중심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과 지역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 지자체 연계 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하고, 학생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학교 맞춤형 교육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연천군 수레을교과와 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체결을 시작으로, 24일 하남시, 2026년 1월에 안양시, 과천시, 2월에 광명시, 성남

시 등 다수의 시·군 지자체와 순차적 업무협약을 계획하고 있다.

협약 주요 내용은 ▲학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발굴·운영, 질 관리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지자체 산하기관·재단 등 지역 교육자원의 경기 공유학교 연계 등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교 맞춤형 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교육자원을 학교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의 지속적 심화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민수 기자

안성시·경찰·소방, 겨울철 재난 대비 대응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9일 안성시를 방문해 2025년 여름철(호우) 대책주진 우수기관에 따른 표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대책주진 우수기관에 대한 격려와 함께 겨울철 대설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경계구간 강설 시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마을제설단 활성화를 통해 생활밀착형 제설 대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성시는 지난 18일 3대 기관장(안성시장, 안성경찰서장, 안성소방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안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금년도 기상전망 및 대설 대비 사전 점검사항

▲겨울철 한파 및 풍수해 대책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등 겨울철 재난 안전 대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공공기관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겨울철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3대 기관 간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대응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민수 기자

광교중앙로삼거리~죽전삼거리 스마트교차로 구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3일 '2025년 용인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준공에 따라 국도 제43호선 상 주요 교차로 8곳에 '스마트교차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교차로'는 교차로에 설치한 영상·교통 검지 장비 등으로 교통량, 속도, 점유율, 대기 행렬 길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신호를 운영하는 ITS이다.

적용 구간은 광교중앙로삼거리부터 죽전삼거리까지 4.8km다.

앞서 시는 용인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43호선 일대의 교통사고 예방과 상습 정체를 해소

하고자 해당 구간에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도 43호선은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고,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량이 집중돼 교차로 정체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시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신호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수집·분석된 교통 정보를 활용해 교통 운영 지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등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AI 기반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교차로를 통해 교차로 운영을 보다 과학적으로 개선해 맞춤형 신호 운영을 통해 교차로 통행 효율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며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ITS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군포 핫뜨거' 시민 호응 속 조기 소진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 핫팩 자판기 사업 '군포 핫뜨거'가 운영 개시 첫날부터 전 지점 100% 소진을 기록하며 겨울철 한파 대응 정책으로써의 효과를 입증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군포 핫뜨거'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산본로데오거리·금정역 앞·당정근린공원 등 설치된 3개소 모두에서 준비된 핫팩이 운영 첫날 전량 소진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산본로데오거리 설치 지점은 운영 개시 후 불과 3시간 만에 핫팩이 모두 소진돼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군포 핫뜨거'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스마트 자판기를 통해 핫팩을 무료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민이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1인

1일 1개 핫팩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운영 시스템이 특징이다.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아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이용이 가능해, 한파에 취약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 핫팩을 이용한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정말 고맙다", "출근길에 체감 효과가 크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폭염 대응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은 '군포 얼음뱅'에 이은 사계절 자연재난 대응 정책의 연속 선상에 있는 사업으로 폭염과 한파를 아우르는 군포시민의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31-390-0409)으로 문의 하면 된다.

경기도, 3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획득 및 장관상 수상

2019년 신규 인증 이후 3회 연속 인증 달성, 2028년까지 3년간 인증 유지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2019년 신규 인증, 2022년 재인증에 이어 3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달성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의 내·외부 환경, 민원 처리 실태, 민원 서비스 운영 수준, 민원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그 지위를 3년간 인정하는 제도다.

도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부 내·외부 안내판을 정비하고, 민원실에 베트남, 몽골, 러시아 등 10개 국가 언어 민원 서비스와 큰 활자체 등 민원인 편의 용품을 비치해 민원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치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물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안심 민원실' 구



축에 힘썼다.

특히 민원상담실 빙을 공사 등리 모델링을 통해 민원인의 목소리와 민원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으며, CCTV, 녹음장치, 비상벨 설치로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부터 민원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민원환경을 개선한 결과,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하남시, '친환경 검단산 둘레길' 산책형 둘레길 개통

검단산 유길준묘 등산로 ~ 캠프 콜번 부지를 잇는 검단산 둘레길(2.7km) 개통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검단산을 보다 가볍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산책형 둘레길 '친환경 검단산 둘레길'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검단산 둘레길은 관광안내소 초입에서 유길준묘 등산로 방향으로 약 900m를 기준 등산로와 함께 걷다가, 우측으로 갈라지는 코스로 이어진다. 기존의 '정상 등반' 중심 동선과 달리,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숲을 천천히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둘레길 초입부에는 맨발걷기길이 함께 마련돼, 시민들이 신발을 벗고 흙길의 감촉을 직접 느끼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다. 본격적인 산행 전 몸을 풀거나, 가볍게 숲을 걷고 싶은 시민들에게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친환경 검단산 둘레길은 유길준묘 등산로 입구부터 캠프콜번 인근까지 총 2.7km 구간에 조성됐다. 이름에 걸맞게 기존 쟁길과 작업로 등 이미 훼손된 구간을 최대한 활용해 노선을 구성했으며, 불필요한 절·성토를

줄여 추가적인 자연 훼손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데크시설, 야자마트, 목계단, 편체, 돌계단, 쉼터 등을 설치해 숲의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 2026년 2월부터 자율주행 셔틀 도심을 달린다

성남동 일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구·신도심 연결 시범운행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지정되어 2026년 2월부터 도심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이번 시범운행은 중원구 성남동 일원을 중심으로 성남아이테크밸리와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잇는 구간에서 이뤄지며, 성남시가 추진해 온 모빌리티 특화도시 전략을 실제 교통 서비스로 구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구도심과 신도심 간 이동 단절과 주요 거점 간 직통 연결 부족으로 발생해 온 교통 공백을 자율주행 기반 이동 서비스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성남시는 기존 대중교통을 대체하기보다, 환승 부담이 크거나 직통 노선이 부족한 구간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을 투입해 시민 이동의 연속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 셔틀은 모란역 인근 성남종합운동장 애와 주차장에 조성된 모빌리티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두 개 노선에 각각 1대씩 투입돼 운영된다. 노선 A는 모란역 일원을 포함한 구간에서 판교제2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편도 8.1km 구간이며, 노선 B는 허브센터를 기점으로 성남아이테크밸리와 모란역, 수진역, 신흥역,

단대오거리역 등 주요 교통 결절점을 순환하는 12.1km 노선이다.

셔틀은 2026년 2월 운행 개시를 목표로 2년간 시범 운영되며, 해당 기간 동안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12:00~13:00 점심시간 운행 중단), 하루 약 4회 운행 예정이다.

각 차량에는 안전관리자 1명이 탑승해 운행 전후 차량 점검을 수행하고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전 노선은 자율주행 기능 구현을 원칙으로 하되, 모란역 인근 등 교통 혼잡으로 정체가 우려되는 구간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수동주행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 이용은 서비스 노선 내 기존 버스정류장에서 현장 탑승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시범운행은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일상 이동 속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 교통 서비스로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신·구도심을 잇는 연결성과 구도심 내 순환 이동성을 함께 높여, 자율주행이 기술이 아닌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오산시, 지반침하 우려 구간 GPR 탐사 실시 지하 공동 신속복구

오산시(시장 이관재)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도로 중 지반침하 우려 구간 약 50km를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확인된 지하 공동에 대한 신속복구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는 도로나 지반에 전자파를 투과시켜 반사파를 분석함으로써 지하 구조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검사 방법이다. 오산시는 이번 탐사에서 GPR 장비를 활용해 지하 공동과 지반 약화 구간을 체계적으로 점검했으며, 공동이 의심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핸디형 GPR 탐사와 천공 확인조사를 병행해 조사 정확도를 높였다.

그 결과, 천공 확인조사를 통해 실제 공동으로 확인된 8개소에 대해서는 유동성 채움재를 활용해 공동을 충전·보강하는 방식으로 신속복구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도로 하부 지반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오산시는 이번 GPR 지반탐사를 통해 도로 하부 상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통행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반침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전 탐지와 신속한 복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 고양콘의 감동을 그대로…'고양콘 특별전' 개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2일 고양관광정보센터 1층 영상관에서 '고양콘 특별전'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25년 고양에서 개최된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를 기념하고, 고양관광특구를 특화·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별전에서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사인이 담긴 포스터와 핸드프린팅, 콘서트 한정 굿즈 등 다양한 기념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생생한 현장의 감동을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개관 첫날인 22일(월)에는 K-팝 열풍과 한류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중부대학교 중국 유학생 32명을 초청해 개관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지드레곤과 BTS 사진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블랙핑크 핸드프린팅에 손을 대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환영인사를 전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콘은 이제 하나의 문화브랜드로 자리잡았다"며 "내년에는 더